

앓과 분별이 근본진리 탐구에는 장애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㉔ 불교와 도교의 일맥상통 - 오장관의 일화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오장관의 진원대선과 인삼과 는 도교적인 바탕 위에서 이해해야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진원대선(鎭元大仙)의 정체부터 벗겨보기로 하죠.

진원대선이라는 이름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근본, 시원을 누른다는 뜻이네요. 단순히 누른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안정시킨다고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근원을 흔들림 없게 안정시키는 큰 신선이란 뜻을 가진 신선이겠죠. 그리고 그 분의 전공분야가 아주 독특합니다. 하늘 세계에 가서 혼원도과(混元道果)를 강의한다네요.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근원'의 도에 대해서 강의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전공분야가 시원, 근본에 관한 이야기인거죠. 그리고 그 근본은 사물들이 또렷하게 나누어지기 이전의 존재이고, 그래서 뒤섞이고 흐릿한 것으로 묘사되네요. 도교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노자의 사상을 살펴보면 분명 도는 모든 것이 나누어지기 이전의 통나무와 같은 것으로 묘사되죠. 또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잡으려도 잡지 않는 그러한 것을 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또렷하게 아는 것이 좋은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도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겁니다. 통나무가 쪼개져서 여러 가지의 그릇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근원에서 벗어나고 어그러진 상태에 있으면서 본래의 전체성을 잃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냐구요?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전체를 잃고 부분에 매달려 이 것이 옳네, 저 것이 좋네... 하며 털끝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또 그렇게 근원에서 떨어진다 것은 참된 생명에서도 떨어진다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은 잘 사는 길을 찾았다고 예를 쓰는 것이 점차로 참된 생명의 진실한 모습을 등지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노자는 "도를 하면 나날이 (앓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단순히 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성을 해침으로써 생명의 근원과도 멀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가 저한테 가끔 핀잔하시듯 하신 말씀이 떠오르네요. "너는 아는 게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참, 저의 어머니는 정말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식의 박학함을 그리고 잘 알아주신 우리 어머니! 갑자기 그림습니다.

이르~ 또 이야기가 탄 데로 해봤군요. 원래 이야기는 아는 것이 많으면 분별이 많고, 그렇게 되면 욕구도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는데 이야기였습니다. 맛을 분별하는 것도 원래는 자연스럽게 우리 생명의 요구를 반영하던 것이었는데, 점차로

맛의 추구가 하나의 독립된 영역이 되고 말면 생명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길로 나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극단적인 예가 인공 조미료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 조미료, 영문 약자로 MSG라 하던가요? MSG라 하면 팔짝 튀시는 분들이 꽤 많습디다. 그렇지만 그 자체로 인체에 큰 해를 끼친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MSG 자체의 해로움보다는 그것이 주는 맛각각의 혼란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치면 다 맛이 비슷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맛각각과 생명의 욕구 사이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입이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찾아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맛 자체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여, 결국 자연성에서 멀어지고, 본래적인 생명의 욕구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을 만들어 낸 대표적 예정 가격 바로 이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인공 조미료를 들어 보았습디다만, 우리 현실을 잘 살펴보면 그러한 예들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 생명을 위하여 필요하던 것이 결국 우리 생명을 해치는 것들이 된 예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자연성을 벗어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모든 것이 본래의 목적과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노자로부터 시작하는 도가(道家)의 사상은 도교(道敎)로 이어지고, 본래적인 자연성을 회복하려는 가르침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러다보면 본래적인 근원으로의 회귀라는 경향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본래적인 근원을 여러 가지 형태로 신격화하거나 상징화하게 됩니다. 도교의 최고 신이라 할 수 있는 원시천존(元始天尊)도 그러한 예 가운데 하나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진원대선과 혼원의 도라는 것도 바로 그러한 근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물들이 나누어져 나오기 이전의, 모든 것이 뒤섞인 근원을 지키는 도를 수행하여 신선이 된 분이 바로 진원대선이겠죠. 참된 근본, 모든 것이 뒤섞여 또렷하게 나누어지지 않은 근본이야말로 참된 생명이라 할 수 있거든요. 노자의 후배 격이라 할 수 있는 장자의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남쪽 바다의 임금을 숙()이라 하고, 북쪽 바다의 임금을 흘(忽)이라 하고, 그 중앙의 임금을 혼돈(混沌)이라 하였습디다. 숙과 흘이 때때로 혼돈의 땅에서 만났는데, 혼돈은 그 때마다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숙과 흘은 혼돈의 은덕을 갚을 길이 없을까 의논했습니다.

"사람에겐 모두 일곱 구멍이 있어 보고, 듣고, 먹고, 쉬는데 오직 혼돈에게만 이런 구멍이 없으니 구멍을 뚫어 줘야" 했습니다. 하루 한 구



그림 · 최주현

전체를 잃고 부분에 매달리는 중생 노자 '도를 하면 앓 줄어든다' 표현 가벼운일을 잘 참아내는 수양부터

멍씩 뚫어 주었는데, 이레가 되자 혼돈은 죽고 말았습디다.

이 이야기가 뭘 말하는지 짐작 가지시지요? 혼돈이야말로 근원적인 생명이 해당할 것 같지요? 그것에 감각과 분별이 생기게 만들어주니 오히려 그것이 죽고 말았다. 바로 앓과 분별이 근본적인 생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화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습디다.

그러니까 진원대선이라는 신선은 그러한 근본적인 생명, 참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지켜나가는 신선이요, 그분이 주인으로 있는 오장관은 참 생명의 힘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이겠습디다. 그 참 생명과 연결된 신비한 존재, 그것이 바로 인삼과이겠습디다. 그러니까 그러한 참된 생명의 힘이 응축된 인삼과 하나를 먹으면 무려 4만 7천년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생명 아닙니까!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그것의 힘이 맺힌 정수가 바로 인삼과 아닙니까! 낱새만 말아도 360년을 살 수 있어요! 세상 아무 곳이나 있는 것이 아닙디다. 여기 오장관 아니면 없어요!

그런데 이 인삼과, 절세의 영약이라 할 수 있는 인삼과의 모양이 또한 비범합니다. 사흘도 안된 어린아이 모습이라네요. 좀 너무 비범해서 보통 사람은 좀 먹기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군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전혀 그럴 일 없을 것 같습디다. 한국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냐구요? 탄 건 몰라도 몇가지 측면에선 분명 정상이나 보통에서 벗어남니

다. 특히 몸에 좋다는 거 먹는 데서는, 좀 더 세분해서 말하자면 남자분들 정력에 좋다는 거 찾아 먹는 데는, 여자 분들 이뻐진다는 거 찾아 먹는 데서는 절대 보통 내지 정상이 아닙디다요! 사흘도 안된 어린아이 모습에 걸리기보다는 제가 말한 대로 비범하다 생각하여 오히려 더 미칠 듯 달려 들으시는 분들 많은 것 같네요. 특히 아까부터 침 흘리는 것 참지 못하고 계신 나칠계계 같은 분은! 현장법사는 지극히 보통이고 정상적인 분입니다. 어찌 보면 참된 보물을 몰라보는 어리석은 사람이시지요. 손님 대접으로 내어 놓은 인삼과에 펼쳐 튀지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습디다. 그래서 결국 그 보물은 도관을 지키던 청풍, 명월 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네요. 물각유주(物各有主)라, 물건마다 각각 주인이 따로 있단건가요? 그런 데 먹음 거에는 귀가 밝은 저팔계가 이 사실을 알아 버리고, 여자저차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는 이야기, 앞에서 이미 말했지요? 정말 조그만 일로 말미암아 대형사고가 나고 말았습디다. 중간 이야기를 보면 훑쳐 먹은 거 발각되고, 청풍 명월 두 도사가 말을 좀 심하게 하고, 처음에 잘못 따서 훑 속으로 들어간 인삼과까지 합해서 네가 도둑질 했다고 몰아붙이고, 세 개만 먹었는데 텃 터기 씌운다고 성내고, 이렇게 말이 오가다 더더욱 감정을 상하고, 그래서 손오공이 술법을 써서 인삼과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이야기 전개지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전개가 거의 모든 대형 사건의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것이 문 제입니다. 사람을 죽인단든지 하는 끔찍한 사건을 살펴보면 대개는 '나' '내' '나' 하면서, "왜 반말하냐?" 어쩌구 하는 하찮은 일에서 맘을 상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측면

에서 보면 조그만 것을 더 참기 힘들고, 그것이 증폭되어 큰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을 참기는 쉽고, 가려움을 참기는 힘들다"는 말도 있습디다. 가려움과 같은 가벼운 일을 잘 참아내는 수양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참을 인(忍)자 세 개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도 있습디다. 그 때 참아야 하는 것이 꼭 큰일인 경우보다 작은 일인 경우가 많지요. 자그만 일에 발끈하는 것을 참는 수양, 그것이 참는 수양의 출발점입니다.

서유기의 저자 오승은 여기서 가벼운 파자풀이의 여흥을 보여주고 있네요. 마음 위의 칼을 갖지 못하고, 마디 옆에 그리고를 기억하지 못하여 큰 사고를 낸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마음 위의 칼이라는 것은 바로 참을 인(忍)자가 마디라는 말입니다. 한자가 아래는 마음 심(心)이고 위는 칼날 인(刃)자 이지요. 그러니까 참을 인(忍)자는 刃 + 心입니다. 그것을 파자(破字; 글자를 분석해서 봄)해서 풀이한 것이지요. 그리고 '마디 옆에 그리고' 라는 것은 바로 참을 내(耐)자를 파자한 것입니다. 참을 내(耐)자는 이(而) + 손(寸) 이지요? 그리고 이(而)자는 점속사로써 '그리고' 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손(寸)자가 '마디' 라는 뜻을 가진 것은 다 아는 사실, 그러니까 오승은 은 사람들이 인내(忍耐)라는 두 글자를 몰라서 엄청난 사건을 만든다는 것을 파자풀이라는 장난스런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하니까 기억에 꼭 박히기는 하겠지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꼭!

그러나 저러나 큰 일 났네요.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그 귀한 나무를 뿌리째 뽑아 버렸으니, 이 일을 장차 어쩌할거냐! 다음 시간에 그 결과를 보기로 하지요.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on.com 대표 정청행 투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출발 확정 상품				
인도 11일	요금문의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8일	요금문의	(지장도량/관음도량) 구화산/보타나기산 6일	요금문의	
미얀마 6일	요금문의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7일	요금문의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

Myanmar
 선불 선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이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뵤띠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향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산/향주 5일
- 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둥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웨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만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살라-쿠시나기르-룸비나-스라바스타-산자시아-아그라
-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벨라-시그리야-폴로너루와-알루비히라-캔디
-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벨라-시그리야-폴로너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벨라-시그리야-폴로너루와-미탈레-캔디-콜롬보-룸비나-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살라-쿠시나기르-쉬라바스타-룸비나-카트만두-나기르코트

티벳/부탄

- 티벳 6일**
성도-라싸-양드록초-간체-시가체
-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피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무나카-팀푸-피로-카투만두-나기르코트
-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열강-통달(오명불학원)-백목(아침스)-간당-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책)
-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 하롱베이/씨엠틀 6일

대만/홍콩

- 대만 5일
- 대만/홍콩 5일
- 대만3대사찰
- 홍콩(2)-대만(1)-화권

세계문화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울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